# ព្រះយេស៊ូទ្រង់ស្រឡាញ់ ប្រទេសកម្ពុជា
# 예수님은 캄보디아를 사랑하십니다

"쁘레아예수 스럴란 쁘로떼깜뿌찌아"

제 49호 ▌2022년 11월 28일 / 발행인 : 조성규 · 황은경 인터넷전화 : 02-307-5350, 현지전화 : +855) 011-559-480 (조성규), +855) 017-652-301 (황은경)

##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의 이웃은"

### 《 에필로그 》

유독 비가 많이 오던 우기가 건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 인한 피해는 멈추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거의 10년 만에 생긴 큰 수해라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현지 분들의 행복지수는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망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캄보디아 내에 어려운 이웃을 향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기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기쁨과 고마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해를 입은 지역을 방문하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의 지역들이 꽤나 있었고 길이 아닌 물 위로 배를 타고 다녀야 하는 상황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서 한편 마음 구석에서는 '더 좀 많이 할 것'을, '좀 더 빨리 올 것'을 이런 생각이 컸습니다.

식수 부족, 수인성 질병, 집이 잠겨 부엌이 없는 상황, 옷, 생필품 그야말로 모자람 투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처럼 정부 주도의 공동 생활공간을 해주는 것도 아니기에 각 자의 집에서 또는 이웃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 아프기도 했습니다.

가난은 나랏님도 어렵다고 하는 옛 말이 있기에 다 도울 수 없고 여력도 안되니 할 수 있을 만큼만 시작하고 나누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점점 더 많은 분들의 손길이 컸기에 정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모르쇠가 아닌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같이 힘이 되어주는 손길이야 말로 진정한 이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일은 생각보다 큰 것으로 출발이 아닌 작은 어려움에 동참하고 돕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 여러분들과 교회들에게 다시한번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이의 진정한 선한 이웃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 《 시골 마을 쁘레이스뻐으교회 이야기 》

제가 있는 시골은 캄보디아 지도에서 보면 거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캄퐁톰이라는 도(우리나라로 치자면 충청도쯤 위치한)이고 거기에 도청소재지가 위치한 스텅싸엔시에 있는 외곽의 시골 마을입니다. 마을에 행정구역으로 오우쿤토(면)안에 있는 쁘레이스뻐으마을(리)입니다. 강 옆에 길을 따라 마을이 집집마다 이어져 있습니다. 마을에는 중학교 1개,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령층이 높은 편이고 자식들은 프놈펜이나 태국으로 가서 돈을 벌고 할머니들 손에 손주가 키워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대부분 학생들은 어느 정도 배우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일할 곳을 찾아 마을을 떠나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공부보단 가난한 집안 환경으로 인해 중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의 청소년들이 저에게는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이제는 제법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같이 밥도 해먹고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지 벌써 6년이 되어갑니다. 처음에는 교회 땅에 비닐천막을 깔고 시작한 주일학교 모임이 어느 덧 건물을 갖춘 교회당이 되었고 작지만 방과후 교실 한 칸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법 교회 구성원이 많아지고 청소년들까지 모여드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임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말없이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와주시는 손길이 계셨기에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우기를 거치면서 교회 건물에 수리할 부분을 하나씩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예배당 지붕에 물이 새서 수리하고 뱀이 들어와서 뒤쪽 담장 일부를 막고 세면대를 만들고, 방과후 교실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택에 방을 한 개 더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보수 공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특별히 재정이 있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비용만도 1,800불(한화 250만원)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또다시 빚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사택 공사는 현지 목회자 가족이 살려면 최소 방이 2개는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시작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디 교회 공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부족한 재정과 기술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방과후 교실을 위한 좋은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팔리**'라는 선생님은 프놈펜에 있는 사립학교에 근무하시다 고향으로 내려와서 만난 선생님입니다. 일반대학을 졸업하시고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셔서 주일에는 주일학교 예배도 맡아 주십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급여를 프놈펜 학교들만큼은 주지 못하지만 신앙으로 한발씩 나가고 있기에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모습이 보여질 것 같아 좋습니다.

## 《 젊은 청년들의 공동체 대학생 학사 》

프놈펜에 대학생들은 이제 학년이 마쳐지고 위에 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입니다. 12학년 시험이 12월 5일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학사에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수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사내에 침구류, 주방기구, 수납장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준비하는 것이 저의 몫이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새학기 학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벌써 이 부분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전공과 학교에 따라 학비는 차이가 있지만 보통 1년에 대략 $650 전후가 됩니다. 여기에 사립대학교나 전공이 의대나 약대의 경우는 훨씬 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약 $4,000(한화 500만원) 정도의 학비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의대생을 돕고 있지만 엄청난 학비가 저희에게 부담입니다. 지금 의대를 다니는 **위레악**은 전문의 과정 7년차 학생입니다. 앞으로 2년만 더 다니고 의사 시험을 보면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꿈에 그리는 청년으로 다시 성장할 것을 알기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없음을 실감합니다. 12월 말까지 필요한 비용이 잘 채워져서 공부하는 학사 6명의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 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학비지원 후원계좌번호 우리은행 125-000836-02-101 조성규(대학생 학사 사역계좌)

## 《 지역사회 지원 사업 - 수해지역 긴급생활용품키트 》

어려운 이웃을 향한 많은 분들의 손길에 수해를 입은 가정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430여 가정 이상의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놀랐고 감사할 뿐입니다. 한 달을 넘게 비가 내려 물이 잠긴 집을 보고 길을 다닐 수가 없어 배를 타야만 했고 고립된 가정을 보았습니다.

수해지역 교회들은 물이 잠겨 가정에서 예배를 임시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불편하고 병든 이들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힘이 되고 빛을 보네 되었습니다. 아래 명단은 함께 해주신 분들과 교회들입니다. 감사합니다.**(입금 순으로 적었습니다.)**

- 오은국, 방호순, 박기성, 대방중앙교회(이재욱목사), 정은미, 김홍주, 정태훈, 조성준, 정연순, 조현정, 홍은혜, 김미현, 광명교회(이광성목사), 남경운, 믿음3구역(성일교회), 종은교회(김근배), 김진국, 김우정, 축복합니다. 2만헤어샵, 원주강서교회(차용현목사), 정광준, 한나영, 주님의벗교회(박태의목사), 박현동, 노인천국소망교회(박남주목사), 임애경, 이기석, 김영연, 화성로뎀나무교회(조호석목사), 나용균, 김현철, 퇴계원사랑교회(박승남목사), 광성교회(김권우목사),이룸교회(김동성목사), 이지원, 은총교회(정해용목사), 김인숙, 김경호, 윤여원

※ **지역사회 연계** : 공립학교(도서관, 교실 등), 지역마을 구호사업(우물, 생계지원물품)

(**기업은행** 512-000001-97-227 대신세계선교회 / **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

(혹 **이름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으신 분들**은 말씀해주시면 **무명으로 기입**하겠습니다.)

[수해지역 방문]

[교회 보수 및 공사]

[대학생 학사관 모임]

[시청과 업무협약식]

## 연락처 및 후원 계좌

☞ 이메일 : kcmcsk@hanmail.net(조성규) / hek1009@hanmail.net(황은경)
☞ 인터넷전화 : **02-307-5350(핸드폰에 저장하시고 바로 통화가능 - 시내요금)**
☞ 캄보디아연락처 : +855 11-559-480(조성규), +855 17-652-301(황은경)
☞ S N S : 카카오톡 ID - csk0524(조성규), hek1009(황은경) / facebook.com/chosungkyu

### ♣ 선교비 후원계좌

| | | | |
|---|---|---|---|
| **국민은행** | 217-21-0200-321 | 조성규 | (**생활비** 후원계좌) |
| 하나은행 | 395-810148-76807 | 황은경 | (선교사 MK 교육비 후원계좌) |
| 하나은행 | 313-890727-46307 | 조성규 | (**교회개척** 및 지역개발 후원계좌) |
| 우리은행 | 125-000836-02-101 | 조성규 | (**대학생 학사** 사역계좌) |
| **기업은행** | 512-000001-97-227 | 대신세계선교회 | (**차량 후원** 및 직업센터 / **기부금 영수증 필요시**) |

# ※ 느헤미야/에스더 학사관 일대일 장학결연 프로젝트 ※

**척박한 땅 캄보디아에 소망을 담은 장학생 일대일 결연 프로젝트**는 이 땅 캄보디아를 위한 **평신도 리더** 양성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대학진학을 통해 **믿음의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의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입니다. **가정형편상 대학진학을 못하거나, 중도에 공부를 포기하는 대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결연이 선정되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업을 한 이후, 첫 월급으로 생활하는 시점까지 진행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장학후원을 통해 척박한 땅 캄보디아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리라 확신합니다. 신학생과 같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일도 진행하고 있지만 특별히 평신도 리더를 키우는 일,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결연기간 : 학생당 취업 후 첫 월급 수령 때까지(대략 신입생으로부터 5년)
2. 결연방식 : 후원항목별로 선택하고 지원(아래 항목참조)
3. 결연계좌 : **우리은행 125-000836-02-101 조성규 /** 송금시 **(**홍길동/등록금 또는 렌트비 등**)**
   ※ **년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시)** 기업은행 512-000001-97-227 대신세계선교회
4. 문의 및 안내 : 02-307-5350 (인터넷 전화) / 카카오톡 ID – csk0524

## ◎ 일대일 결연 장학 후원항목별 내용 ◎

| 번호 | 항목 | 내용 | 월 후원금 | 대상 | 비고 |
|---|---|---|---|---|---|
| 1 | 등록금 | 왕립대학 등록금 | 7~10 만원 ($60) | 1명당 | 년 $700 |
| 2 | 등록금 | 사립대 등록금 | 20~30 만원 ($150) | 1명당 | 년 $1,800 |
| 3 | 렌트비 | 대학생 학사관 (남/여) | 40 만원 ($350) | 1곳당 | 년 $7,000 |
| 4 | 교통비 | 등하교시 주유비(1대당) | 5 만원 | 오토바이 | 기름값 |
| 5 | 교육지원비 | 학원 및 교재비 | 3 만원 | 1인당 | 약간의 용돈 |
| 6 | 공과금 | 남, 여학생 학사관 | 10 만원 | 1곳당 | 전기, 수도등 |
| 7 | 생활비 | 학사 식비(월간) | 30 만원 | 1곳당 | 기준 5명 |
| 8 | 교복(의류) | 년 2회 | 1회 50 만원 | 학기당 | 프놈펜 기준 |

※ **신학생을 일대일 결연하실 경우**는 별도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